

2019년 3/4분기

관광·레저산업 인적자원개발위원회(ISC) 이슈리포트(ISSUE REPORT)

- 관광·레저산업의 비정규직 종사자 실태분석
- 유원시설업을 중심으로-



관광·레저산업 인적자원개발위원회
Tourism & Leisure Industrial Skills Council

● ● ● 목 차 ● ● ●

■ 관광·레저산업의 비정규직 종사자 실태분석 - 유원시설업을 중심으로 -

(요약) 1

I. 개 요 3

II. 비정규직의 개념 및 사업체 현황분석 5

III. 유원시설업 비정규직 종사자 여건 분석 12

IV. 시사점 및 ISC역할 18

□ 비상업 목적으로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할 경우 내용의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으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레저산업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사무국(02-569-6880)

- 이대성 사무총장(dsl@hotelkorea.or.kr)
- 최병길 선임연구원(cbk@hotelkorea.or.kr)
- 김은주 연구원(ejkim5410@hotelkorea.or.kr)
- 엄진수 연구원(jseom@hotelkorea.or.kr)
- 권혁진 연구원(khj@hotelkorea.or.kr)

요

약

□ 관광·레저산업의 비정규직 종사자 실태분석 - 유원시설업을 중심으로 -

□ 개 요

○ 사업의 배경 및 목적

- 관광·레저산업은 외국인 관광객의 증가와 내국인의 국내·외 국민여행경험률 증대에 따라 지속적인 성장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그와 함께 종사자의 양적·질적 성장 요구
- 관광·레저산업 중 유원시설업의 경우 2017년 기준 전년대비 사업체 수가 43.5%가 증가됨에 따라 종사자 역시 16.4%가 증가하고 있어 지속적인 종사자 수요 증가 예상
- 하지만 유원시설업은 업종 특성(높은 인적의존도, 계절적 영향 등) 및 정부정책(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하여 및 산업 내 타 업종에 비해 비정규직 종사자(임시 및 일용근로자 등)의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어 개선 필요(비정규직 종사자 약 50%)
- 이에 따라 유원시설업의 비정규직 종사자의 개선과 더불어 ISC역할(사업참여) 제시 필요

□ 현황분석

○ 비정규직 개념

- 비정규직이란 일정한 기간의 노무급부를 목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한시적으로 근로관계를 맺는 모든 非조직화 된 고용형태로 기간제, 단시간 근로(파트타임), 파견근로 등
- 한국노동연구원 비정규직 분류: 한시적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비전형 근로자
- 문화체육관광부 비정규직 분류: 임시 및 일용근로자, 기타근로자

○ 관광·레저산업 업종별 현황

- 관광·레저산업 업종별 사업체 수는 2017년 기준 33,089개이며, 종사자 수는 280,270명이며, 유원시설업은 2,548개소(27,561명)으로 나타남
- 고용형태별로 살펴보면 정규직 개념의 상용근로자는 전체 종사자(280,270명)의 71.7%를 차지하고 있으며, 비정규직인 임시 및 일용근로자(19.0%)와 기타종사자

(22.5%)로 나타났으며, 유원시설업의 경우 상용근로자 39.5%, 임시 및 일용근로자(기타근로자 포함) 51.0%로 산업 내 타 업종 대비 높게 나타남

- 업종별 신규 종사자 임금수준은 카지노업(3,700만원), 유원시설업(3,000~3,200만원), 크루즈업(2,800~2,900만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여행업은 2.200만원으로 가장 낮은 임금수준을 보임

□ 유원시설업 비정규직 실태분석

○ 유원시설업 개념 및 특성

- 관광진흥법상 유원시설업은 법제3조 제6호에 의하면 “유기시설이나 유기기구를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으로 종합유원시설업, 일반유원시설업, 기타유원시설업으로 구분함
- 유원시설업은 인적서비스의 의존도가 높아 많은 인력의 수요가 발생하지만 계절적 영향, 즉 성비수기의 존재로 인하여 비정규직 종사자의 활용도 높음

○ 이러한 유원시설업의 비정규직 종사자 실태 분석

-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수준은 정규직의 70%대 수준을 나타내고 있는 반면 근로일수 및 근로시간은 정규직의 90%의 비율을 나타남에 따라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무여건 개선이 요구됨
- 또한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가입의 경우 파견 및 기간제 근로자는 90%이상 가입되어있으나 한시적 근로자의 경우 산재보험 외 모두 25% 수준에 머물러 있어 근무경력 인정 등을 고려하여 사회보험 가입률 증대가 필요함

□ 시사점 및 ISC 역할 제시

○ 시사점

- 국내 관광·레저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추세에 따라 유원시설업 역시 인력의 수요가 요구되지만 산업특성상 비정규직 종사자의 활용도가 높아짐에 따라 종사자와 기업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는 개선방안 모색 필요

○ ISC역할 제시

- 유원시설업 대상 지속적인 실태조사(근무여건, 교육 등)
- 산업현장과 교육기관 연계를 통한 비정규직의 현장 맞춤형 교육 추진 및 인력양성
- 분야별 비정규직 근로자 인력POOL 구축을 통한 플랫폼 역할(기업 수요 대응)

I | 개요

□ 이슈리포트 주제 선정 절차

- 관광·레저산업 인적자원개발위원회(ISC)는 3분기 이슈리포트 작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프로세스를 통한 산업 내 핵심이슈를 도출하였으며, 현재 산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관련 자료의 분석을 통해 시사점(추진과제 등)을 도출하고, ISC의 역할을 제시하고자 함

[그림1] 3분기 이슈리포트 주제 선정 프로세스



○ 1단계: 데스크 리서치(Desk Research)

- ISC사무국 구성원 중심의 관광·레저산업의 2019년도 상반기 전반적인 이슈 조사 분석을 통한 이슈 주제 도출: 관광·레저산업 내 업종별 비정규직 실태조사, 남북 관광 활성화, 지역관광 전문인력 프로그램 개발(관광두레PD 등), 업종별 ICT 교육 프로그램 개발, 업종별 근무시간 단축 및 최저임금 도입 등

○ 2단계: 전문가 회의(ISC 인력 pool)

- 선임위원 자문을 비롯한 산업별 분과위원회 등 ISC 인력pool을 활용하여 기 도출된 주제의 정제과정 및 최종안 선정: 산업내 비정규직 실태분석(유원시설업) 도출

○ 3~4단계: 전문가 기획회의 제1차·2차(협회/현장)

- ISC 인력pool 중심으로 선정된 이슈에 대해 관련 전문가(협회/기업담당자 등)를 대상으로 기획회의를 진행함으로써 이슈에 대한 적정성 검증: 제1차 기획회의(학계, 현장 각각 진행 의견수렴), 제2차 기획회의(의견수렴 내용 기반 공동 진행)

○ 5단계: 최종 선정된 이슈에 대한 리포트 작성 및 활용계획 수립

- 외부 전문가 기획회의를 통해 검증된 최종 이슈를 기반으로 리포트 작성 및 산업 내 활용계획 수립: 리포트를 통한 산업내 업종별 시사점(추진과제) 및 ISC 역할제시 등

□ 사업의 배경 및 목적

- 중국의 사드보복 이후 증가추세를 보이는 외국인 관광객(2018년 기준 약 1,534만 명)의 한국방문과 국민들의 국내·외 여행경험률(국내: 89.2%, 국외: 22.4%)이 증대됨에 따라 관광·레저산업은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그로 인한 산업 내 분야별 인력수요 역시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¹⁾
 - 문화체육관광부(2018)의 자료에 의하면 2017년 기준 관광사업체 수는 전년대비 19.5%가 증가한 33,089개소로 나타났으며, 종사자 수 역시 전년대비 7.0%가 증가한 280,270명으로 나타남²⁾
- 이렇듯 관광·레저산업의 발전은 전통적으로 인적서비스 의존도가 높은 산업 특성을 반영하여 업종별 고용창출 효과가 기대되고, 그와 함께 종사자의 양적·질적 성장이 요구되고 있음
- 하지만 이런 사회적 요구(양질의 일자리)와는 달리 산업특성³⁾과 정부의 다양한 정책으로 인하여 오히려 정규직의 비중이 감소하고, 비정규직의 비중이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⁴⁾
 - 관광·레저산업의 2017년 기준 상용근로자(정규직)는 71.7%로 전년대비 2.5% 감소하였고, 비정규직인 임시 및 일용근로자 19.0%(전년대비 2.2% 증가)와 기타 종사자 2.5%는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⁵⁾
- 또한 관광·레저산업은 타 산업군에 비해 임금수준이 매우 낮게 형성되어 있으며, 비정규직의 경우 더 낮은 임금수준이 형성됨에 따라 잦은 이직이 발생하는 현상과 더불어 정부의 노동환경과 관련된 다양한 정책시행(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인적의존도가 높은 관광·레저산업은 인건비 인상과 같은 결과로 이어져 적잖은 경영악화가 예상됨
 - 최근 불거진 비정규직 관련 다양한 이슈로 인하여 업계의 비정규직 종사자와 관

1) 유원시설업 연간 이용객수는 2017년 기준 162,050,840명이 이용하여 전년대비 23.4%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2) 관광사업체 수를 업종별로 살펴보면 유원시설업이 전년대비 43.0% 증가하여 2,548개소로 나타났으며, 관광편의시설업은 전년대비 4.7%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카지노업 전년대비 동일), 종사자 수를 업종별로 살펴보면 관광객이용시설업이 46.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반면에 카지노업의 경우 22.8%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3) 관광·레저산업은 업종별로 뚜렷한 성비수기가 존재하며, 산업구조상 종사자 수가 10명 미만인 업체의 비중은 2017년 기준 82.6%로 매우 높게 나타남

4) 본 연구에서의 정규직은 상용근로자(고용주와 1년 이상의 고용계약을 맺었거나, 일정한 기간을 정함이 없이 1년 이상 고용될 것으로 예정되어 정기적으로 임금을 받는자)를 의미하고, 비정규직은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를 제외한 임시 및 일용근로자(고용주와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되었거나 1일 단위 고용자)와 기타종사자(일정한 급여 없이 주로 실적급, 수수료 등을 받고 종사하는 자)를 의미함

5) 산업 내 비정규직 근로자의 증가추세는 최근 젊은 층 종사자(정규직, 비정규직 등)들의 직장에 대한 인식변화, 즉 평생직장이라는 개념이 없어지고 있으며, 비정규직에 대해서도 거부감이 없으며, 오히려 다양한 직종의 경험을 선호하는 경향도 있다고 함(업종별 기업담당자 인터뷰 내용 중)

련된 실태분석을 통한 개선방안 모색이 요구됨⁶⁾

<표 1> 산업별 임금 및 근로시간(2018년 기준)

고용 형태	산업분류별	총 근로 일수(일)	총 근로시간(시간)	월 임금 총액(천원)
전체 근로자	전체	19.5	156.4	3,028
	숙박 및 음식점업(55~56)	18.7	138.9	1,471
정규직근로자	전체	20.5	169.7	3,510
	숙박 및 음식점업(55~56)	22.9	192.1	2,152
비정규직 근로자	전체	16.5	116.3	1,588
	숙박 및 음식점업(55~56)	15.4	97.0	933

주): 관광·레저산업에 대한 각종 현황자료는 다양한 형태로 분석되어 고용노동통계자료의 경우 관광·레저산업의 유사 산업군인 ‘숙박 및 음식점업’의 수치를 활용함
 자료: 고용노동통계자료, 2018년 기준 산업별 임금 및 근로시간 현황

- 이렇듯 최근 트렌드 변화와 지속적인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비정규직에 대한 실태분석을 위하여 산업 내 비정규직 종사자 비중이 가장 높은 유원시설업에 대한 현황분석을 통하여 근로자와 기업이 만족하는 인력운영 방안이 요구되며, 관광·레저산업의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대표기관인 ISC의 역할 제시가 필요함

II 비정규직 개념 및 업종별 현황 분석

□ 비정규직 개념

- 국내에서 공식적으로 집계되는 비정규직은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속 고용이 보장되는 정규직 근로자 외의 근로자를 비정규직 근로자로 정의함
 - 비정규직이란 일정한 기간의 노무급부를 목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한시적으로 근로관계를 맺는 모든 비조직화 된 고용형태로 기간제근로, 단시간근로(파트타임), 파견근로 등을 말함(Daum 백과)
- 한국노동연구원(2018)의 비정규직의 분류는 한시적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비전형 근로자로 구분됨⁷⁾
 - 한시적 근로자는 기간제 근로자와 비기간 근로자로 구분되며, 기간제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자이며, 이 외 한시적 근로자는 비기간제 근로자라 함
 - 시간제 근로자란 직장(일)에서 근무하도록 정해진 소정의 근로시간이 동일 사업장

6) 최근 이월드 비정규직 근로자 추락사고로 인하여 비정규직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관련해서 다양한 이슈(임금체불 등)가 기사화 되고 있음

7) 비정규직 개념은 한국노동연구원(2018)의 2003~18 KLI 비정규직 노동통계의 비정규직 개념을 제작성 하였음

에서 동일한 종류의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소정근로 시간보다 1시간이라도 짧은 근로자로, 평소 1주에 36시간미만 일하기로 정해진 근로자를 말함

- 비전형 근로자는 파견근로자, 용역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가정 내(재택, 가내) 근로자, 일일(단기) 근로자로 구분됨
 - 파견근로자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사용사업주의 사업장에서 사용사업주를 위하여 근무하도록 하는 형태를 의미함
 - 용역근로자란 용역업체에 고용되어 이 업체의 지휘하에 이 업체와 용역계약을 맺은 다른 업체에서 근무하는 형태(청소용역, 경비용역 등)를 의미함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 개인적으로 모집, 판매, 배달, 운송 등의 업무를 통해 고객을 찾거나 맞이하여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득을 얻는 형태를 의미함
 - 가정 내 근로자란 재택근무, 가내하청 등과 같이 가정 내에서 근무가 이뤄지는 형태를 의미함
 - 일일근로자란 근로계약을 정하지 않고 일거리가 생겼을 경우 며칠 또는 몇 주씩 일하는 형태의 근로자를 의미함
- 또한 고용노동부의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에 따른 비정규직 근로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재택/가내근로자, 파견근로자, 용역근로자, 일일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기간제가 아닌 한시적 근로자로 구분하고 있어 한국노동연구원(2018)의 비정규직노동 통계 분류와 유사함
- 본 사업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2018)와 한국여행업협회(2019)의 연구보고서를 토대로 관광·레저사업체 현황 및 비정규직 근로여건에 대해 분석하고자 함⁸⁾
 - 문화체육관광부(2018)에서의 근로자 분류를 토대로 연구자는 상용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임시 및 일용근로자와 기타근로자를 비정규직으로 구분하였음
 - 한국여행업협회(2019)는 파견근로자·기간제 근로자·한시적 근로자·가내 근로자를 비정규직으로 구분하였음
 - 기업담당자 인터뷰 결과 ‘S’ 유원시설업의 경우 비정규직의 경우 대부분 서비스 파트에 배치되어 있으며, 한시적·기간제 근로자 형태로 10개월 이하 근무하는 종사원을 비정규직 근로자로 함

□ 관광·레저산업 업종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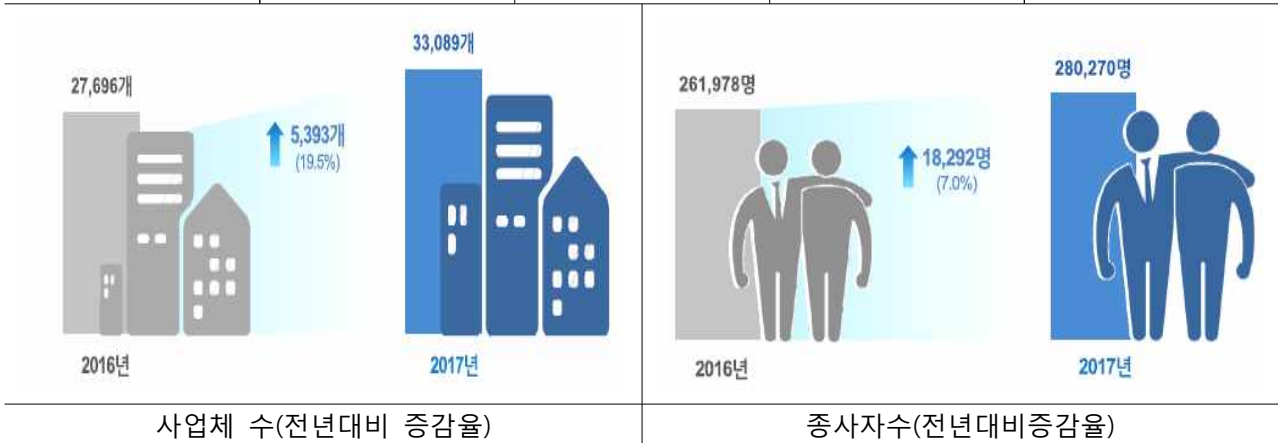
○ 관광사업체 및 종사자수 현황

8) 문화체육관광부(2018)의 2017년 기준 관광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보고서와 한국여행업협회(KATA)의 최저임금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관광사업체 영향분석 보고서의 내용을 토대로 재 작성하였음

- 관광·레저산업 업종별 사업체 수는 2017년 12월 말 기준 관광진흥법에 근거하여 등록·허가·신고·지정된 전국의 관광·레저분야 업종별 사업체 수는 33,089개로 전년 대비 19.5% 증가함
- 업종별로 살펴보면 여행업이 19,944개(60.3%)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관광객 이용시설업 3,963개(12.0%), 관광편의시설업 3,884개(11.7%), 유원시설업 2,548개(7.7%)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⁹⁾
- 2017년 12월 말 기준 관광사업체의 종사자수는 총 280,270명으로 전년 대비 7.0%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이 중 여행업이 107,209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관광숙박업(71,769명), 관광편의시설업(28,998명), 유원시설업(27,561명)등의 순임¹⁰⁾

<표 2> 관광사업체 수 및 종사자 현황 추이(2017년 기준)

구분	업종별 사업체 수		업종별 종사자 수	
	사업체 수(개소)	전년대비 증감율(%)	종사자 수(명)	전년대비 증감율(%)
여행업	19,944(60.3)	20.1	107,209(37.9)	8.9
관광숙박업	1,843(5.6)	7.4	71,769(25.4)	-2.5
관광객 이용시설업	3,963(12.0)	25.1	25,535(9.0)	46.6
국제회의업	890(2.7)	27.1	14,457(5.1)	14.8
카지노업	17(0.1)	-	7,033(2.5)	-22.8
유원시설업	2,548(7.7)	43.0	27,561(9.8)	16.4
관광편의시설업	3,884(11.7)	4.7	28,998(10.3)	7.0
전체	33,089(100.0)	19.5	280,270(100.0)	7.9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8년), 관광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보고서. 재인용

○ 고용형태별·업종별 종사자 현황(비율)

- 2017년 12월 말 기준 관광사업체의 고용형태별 근로자를 살펴보면 정규직인 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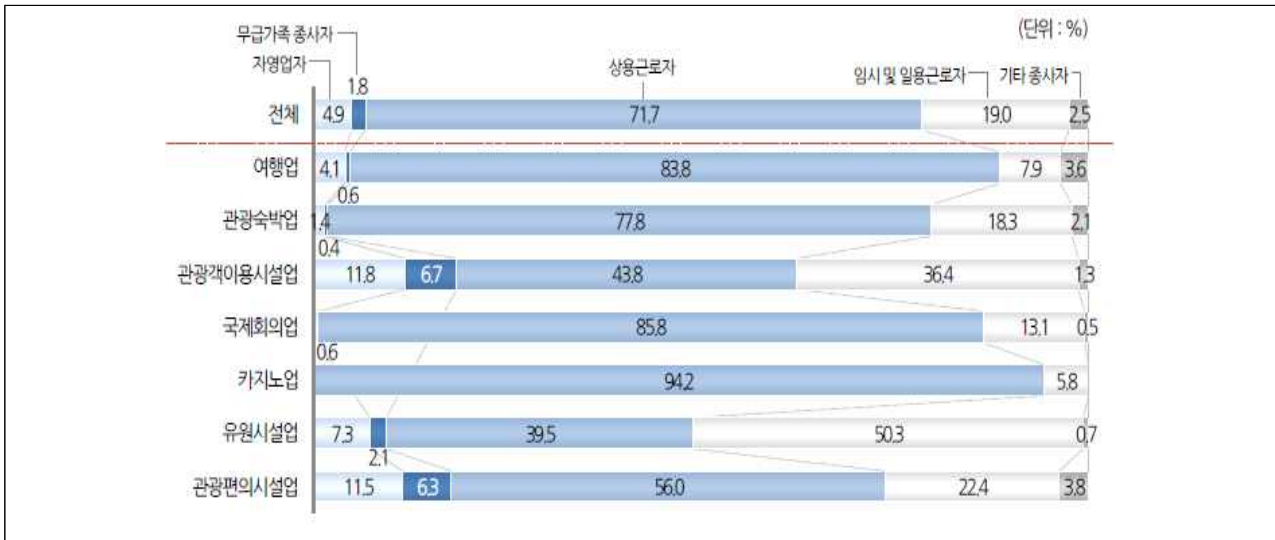
9) 전년대비 증감율을 살펴보면 유원시설업이 전년대비 증가폭(43.0%)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관광편의시설업은 4.7%의 증가율을 보이며 낮은 증가폭을 나타냄(카지노업의 경우 허가사업으로 2014년 이후 17개를 유지하고 있음)

10) 증감율 기준으로 살펴보면 관광객이용시설업이 전년대비 46.6%로 가장 높은 증감율을 보였고, 반면 관광숙박업(-2.5%)과 카지노업(-22.8%)은 전년대비 종사자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근로자가 전체 종사자수(280,270명)의 71.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¹¹⁾, 비정규직으로 분류되는 임시 및 일용근로자(19.0%)와 기타종사자(2.5%)로 나타남

- 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 중 유원시설업의 경우 상용근로자(39.5%)에 비해 임시 및 일용근로자(50.3%)의 비중이 업종 중 가장 높게 나타남

[그림 2] 업종별·고용형태별 종사자 수 구성비(2017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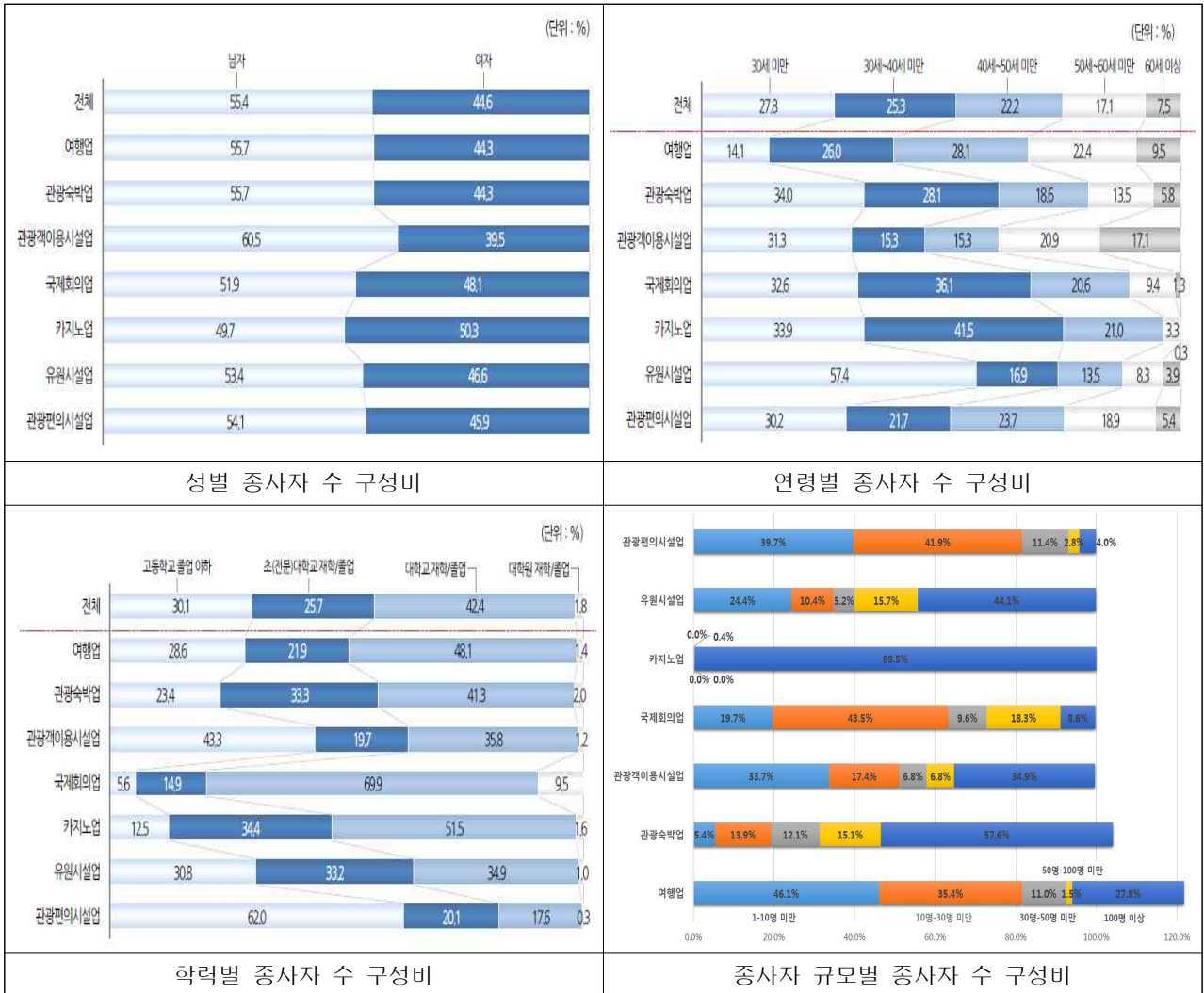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8), 관광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보고서, 재인용

○ 업종별 형태별 종사자 수 구성비(성별, 연령별, 학력별, 규모별)

- 2017년 기준 관광사업체 종사자 280,270명 중 남자(155,323명)가 여자(124,948명) 대비 높게 나타났고, 카지노업(14.5%감소) 및 국제회의업(0.8% 감소)외 5개 업종의 여자 종사자 수는 전년대비 증가하였음
- 연령별 종사자 수는 30세 미만이 72,782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30~50세 미만 종사자 비중 외 모든 연령대 종사자 비중이 증가하였으며, 학력별 종사자 수는 대학교 재학/졸업(110,715명)이 전체의 42.4%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종사자 규모별 종사자 수는 1명-10명 미만의 경우 여행업(46.1%)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10명-30명 미만의 국제회의업(43.5%)이 가장 높았으며, 30명-50명 미만은 관광숙박업(12.1%)에서 높게 나타났고, 100명 이상은 카지노업(99.5%)이 가장 높게 나타남

11) 상용근로자의 경우 총 종사자 수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지만(2015년: 75.8%, 2016년 74.2%, 2017년 71.7%), 반면에 임시 및 일용근로자의 경우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임(2015년 16.1%, 2016년 16.8%, 2017년 19.0%)

[그림 3] 업종에 따른 형태별 종사자 수 구성비(2017년 기준)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8), 관광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보고서, 재인용

○ 업종별 신규직원 임금수준¹²⁾

<표 3> 업종별(기업별) 신규직원 임금수준

(단위: 만원)

구분	여행업	관광숙박업		크루즈업	국제회의업	카지노업	유원시설업
		호텔업	콘도미니엄업				
임금수준	2,200	2,500~2,600	2,800	2,800~2,900	2,500~2,900	3,700	7급: 3,000 5급: 3,200
	트래비즈	서울*호텔	곤**리조트	팬**	PCO	**랜드	**랜드

주) 2019년 산업인력현황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업종별 기업(협회) 담당자 인터뷰를 통해 해당 기업의 신규직원의 임금수준을 파악하였음

자료: 관광-레저산업 인적자원개발위원회(2019), 산업인력현황보고서

12) 업종별 신규직원 임금수준의 경우 기업담당자 인터뷰를 통해 도출하였으며, 해당업종의 특정기업의 임금수준으로 동 업종의 타 기업 임금수준과 차이가 있음

- 관광·레저산업 업종별 기업(기관) 담당자인터뷰를 통하여 신규직원 임금수준을 조사한 결과 카지노업의 임금수준이 3,700만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여행업이 2,200만원으로 가장 낮은 임금수준을 보였음(유원시설업의 경우 7급(고졸)이 3,000만원, 5급(대졸이상)이 3,200만원의 임금수준을 보였음)

○ 업종별 연간 영업개월 수 추이/1일 평균 영업시간 추이¹³⁾

- 2017년 기준 10개월 이상 영업하는 업종별 사업체는 90.6%로 29,991개 업체로 나타났으며, 연평균 영업개월 수는 11.4개월로 전년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함¹⁴⁾
- 2017년 기준 관광사업체 1일 평균 영업시간은 11.5시간으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고, 평균영업시간이 10시간미만을 영업하는 업체 비중이 전년대비 증가한 반면, 10시간 이상~14시간미만을 영업하는 사업체의 비중은 감소하였음¹⁵⁾

[그림 4] 연평균 영업개월 수 추이/1일 평균 영업시간 추이(2017년 기준)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8), 관광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보고서, 재인용

○ 업종별 종사자 신규 인력채용 및 이직 현황

- 2017년 기준 업종별 사업체의 상용근로자 신규채용자 수는 41,571명으로, 전년 (40,033명)대비 3.8%(1,538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종사자수 증가율이 가장 컸던 관광객이용시설업의 신규 채용자 수 증가율(71.5%)이 가장 높게 나타났

13) 연간 영업개월 수는 2017년 실제로 영업활동을 수행한 개월 수(기타 이유로 인한 휴업일 제외)를 말하며, 1일 영업시간은 2017년 중 정상적인 영업일을 기준으로 영업활동을 한 1일 평균 시간(사업체의 개점시간에서 폐점시간까지의 영업시간)으로 종사자 개인의 근로시간이 아닌 사업체 입장에서의 영업시간을 의미함

14) 카지노업의 경우 연중무휴로 평균 영업개월 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유원시설업의 경우 평균 10.9개월 영업하는 것으로 나타남

15) 관광숙박업의 경우 1일평균 영업시간이 23.7시간으로 가장 많은 시간을 영업하고 있으며, 유원시설업의 경우 평균 10.2시간 영업하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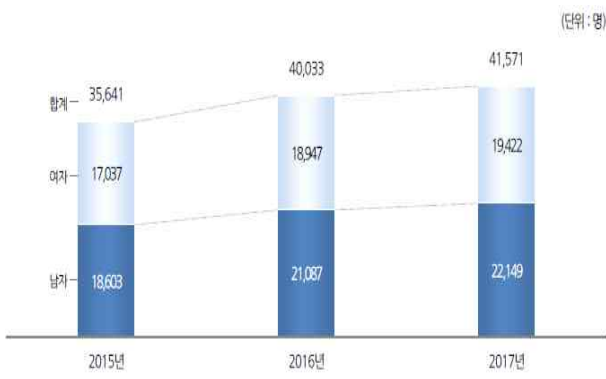
고, 유원시설업의 경우 전년대비 8.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전반적으로 남자 종사자 채용률 높음)

- 2017년 업종별 사업체의 상용근로자의 이직자 수는 33,302명으로 전년대비(34,752명) 4.2% 감소하였으며, 관광편의시설업(-56.4%)과 유원시설업(-25.6%)¹⁶⁾의 감소율이 높게 나타났음(전체적으로 남자 종사자 이직률이 높음)

<표 4> 업종별 신규채용 및 이직자 수(2017년 기준)

(단위: 명,%)

구분	신규 채용자 수			이직자 수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전 체	41,760(100.0)	22,227(53.2)	19,533(46.8)	12,721(100.0)	17,846(53.1)	15,776(46.9)
여행업	15,492(100.0)	8,586(55.4)	6,906(44.6)	12,598(100.0)	6,988(54.9)	5,732(45.1)
관광숙박업	15,235(100.0)	7,853(51.5)	7,382(48.5)	1,188(100.0)	6,640(52.7)	5,959(47.3)
관광객이용시설업	2,038(100.0)	1,310(64.3)	728(35.7)	1,972(100.0)	709(59.7)	479(40.3)
국제회의업	2,525(100.0)	1,097(43.4)	1,427(56.5)	884(100.0)	896(45.4)	1,076(54.6)
카지노업	775(100.0)	392(50.6)	383(49.4)	1,698(100.0)	441(49.9)	443(50.1)
유원시설업	2,318(100.0)	1,324(57.1)	995(42.9)	2,561(100.0)	917(54.0)	780(45.9)
관광편의시설업	3,377(100.0)	1,664(49.3)	1,712(50.7)	33,622(100.0)	1,254(49.0)	1,307(51.0)



업종별 신규 채용자 추이

업종별 이직자 성별 구성비 추이

자료: 문화체육관광부(2018년), 관광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보고서. 재인용

16) 유원시설업은 전년대비 이직자 수가 감소하여, 신규채용율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III | 유원시설업 비정규직¹⁷⁾ 실태 분석¹⁸⁾

□ 유원시설업의 개념 및 특성

- 유원시설업은 일반적으로 관련된 용어(유기장업, 유원시설업, 유원지, 테마파크, 컴퓨터 게임장 등)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서로간의 관련성을 가지고 있음¹⁹⁾
 - 관광진흥법상 유원시설업은 법제3조 제6호에 의하면 “유기시설이나 유기기구를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다른 영업을 경영하면서 관광객의 유치 또는 광고 등을 목적으로 유기시설이나 유기기구를 설치하여 이를 이용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 함)” 이라함(시설 및 종류에 따라 종합유원시설업, 일반유원시설업, 기타유원시설업으로 구분함)
 -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에 따르면 유원시설업은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91210)으로 “기계적인 탑승 놀이기구, 수상 탑승기구, 전시장, 쇼 및 게임장, 휴식시설 등의 종합적인 놀이시설을 갖춘 유흥장을 운영하는 산업활동” 이라함
- 현대의 유원시설업은 테마파크 산업으로 다양한 분야(민속, 과학, 첨단기술, 역사, 문화, 영상, 가상현실, 자연 등)의 특성과 관련한 테마가 결합된 미래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써 다음과 같은 특성을 지님
 - 국민의 건전한 놀이문화를 정착시키는 장으로써 고객의 수요에 맞게 변화하는 패션산업임
 - 다양한 관광상품으로 외화획득의 수단으로 종합적인 과학기술의 발전을 필요로 하는 종합산업이며, 서비스 중심의 고객안전을 바탕으로 한 연출력이 필요로 함
 - 노동집약적 인적서비스 산업으로 계절적 영향을 받는 산업(성/비수기)으로 운영상의 불안정성이 있는 산업 임
- 이렇듯 유원시설업은 인적서비스의 의존도가 높아 직무별로 많은 인력의 수요가 발생하지만 계절적 영향, 즉 성비수기의 존재로 인하여 한시적·기간제의 비정규직 종사자의 증대의 원인이 됨

17) 본 장에서의 비정규직의 분류는 파견근로자, 일일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한시적 근로자, 가내 근로자로 나누어 파견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한시적 근로자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음

18) 유원시설업 비정규직 실태조사는 한국여행업협회(2019)의 ‘최저임금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관광사업체 영향분석 보고서’의 내용을 참조 후 재작성 하였음

19) 유원시설업은 일반적으로 테마파크와 유원시설업의 유기기구에 대한 개념적 차이가 나지 않음

□ 전체 근로자 고용형태별 월 임금 총액 현황

- 유원시설업의 고용형태별 월 임금현황(2018년 기준)을 살펴보면 전체 근로자는 285.8만원이며, 이 중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226.0만원으로 정규직 근로자(302.5만원)의 74.7%의 수준으로 나타남
- 월 임금 총액에 대한 비정규직 근로자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기간제 근로자가 227.3만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파견근로자(225.0만원), 한시적 근로자(76.8만원) 순으로 나타남
- 정액급여로 살펴보면 전체근로자는 242.7만원이며, 이중 비정규직 근로자²⁰⁾는 210.6만원으로 정규직 근로자(251.6만원)의 83.7% 수준으로 나타남

<표 5> 고용형태별 월 임금총액 및 시간당 임금총액(2018년 기준)

(단위: 만원, %)

고용형태		월급	정액급여	초과급여	전년도 연간 특별급여/12개월	시간당 임금총액
전체		285.8	242.7	19.6	23.5	1.7
정규직 비정규직 (정규직 대비 비율)	정규직	302.5	251.6	21.9	28.9	1.8
	비정규직	226.0	210.6	11.1	4.3	1.4
	(정규직 대비 비율)	(74.7)	(81.0)	(50.5)	(15.0)	(77.4)
	파견 근로자	225.0	205.2	18.4	1.4	1.3
	기간제 근로자	227.3	213.5	8.3	5.5	1.4
한시적 근로자	76.8	75.6	0.6	0.6	0.9	

주1) 특수형태 근로자 종사자는 제외

주2) ()는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근로자의 급여부분 비율

자료: 한국여행업협회(2019), 최저임금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관광사업체 영향분석 보고서, 참조 후 재작성

□ 인적특성 및 사업체 규모별 임금 현황

○ 성별/학력별에 따른 임금현황

- 시간당 임금 총액은 남성이 17,429원, 여성이 16,305원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고용형태별로 살펴보면 남성의 비정규직 근로자의 시간당 금액은 14,470원으로 정규직 근로자(17,337원)의 79.8%인 14,470원으로 나타났고, 여성의 경우 비정규직 근로자는 정규직근로자(17,337원)의 75.8%인 13,144원으로 나타남²¹⁾

20)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액급여를 고용형태별로 살펴보면 기간제근로자가 213,5만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파견근로자 205.2만원, 한시적 근로자 75.6만원 순으로 나타남

21) 성별 시간당 임금총액은 전체적으로 남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그 차이는 전체근로자의 경우 1,124원이며, 비정규직 근로자는 1,326원, 정규직 근로자는 802원으로 나타남

<표 6> 고용형태별 성별 시간당 임금 차이(2018년 기준)

(단위: 원, %)

고용형태	전체	남성	여성	성별차이		
				시간당 임금차	여성임금 비율	
전체	16,900	17,429	16,305	1,124	[93.6]	
정규직 비정규직 (정규직 대비 비율)	17,775	18,139	17,337	802	[95.6]	
	13,766 (77.4)	14,470 (79.8)	13,144 (75.8)	1,326	[90.8]	
	파견 근로자	12,710	13,073	1,214	759	[94.2]
	기간제 근로자	14,203	15,125	13,451	1,674	[88.9]
	한시적 근로자	9,125	9,198	9,081	117	[98.7]

주1) 특수형태 근로자 종사자는 제외

주2) ()는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근로자의 급여부분 비율

주3) 시간당 임금차는 남성의 시간당 임금과 여성의 시간당 임금의 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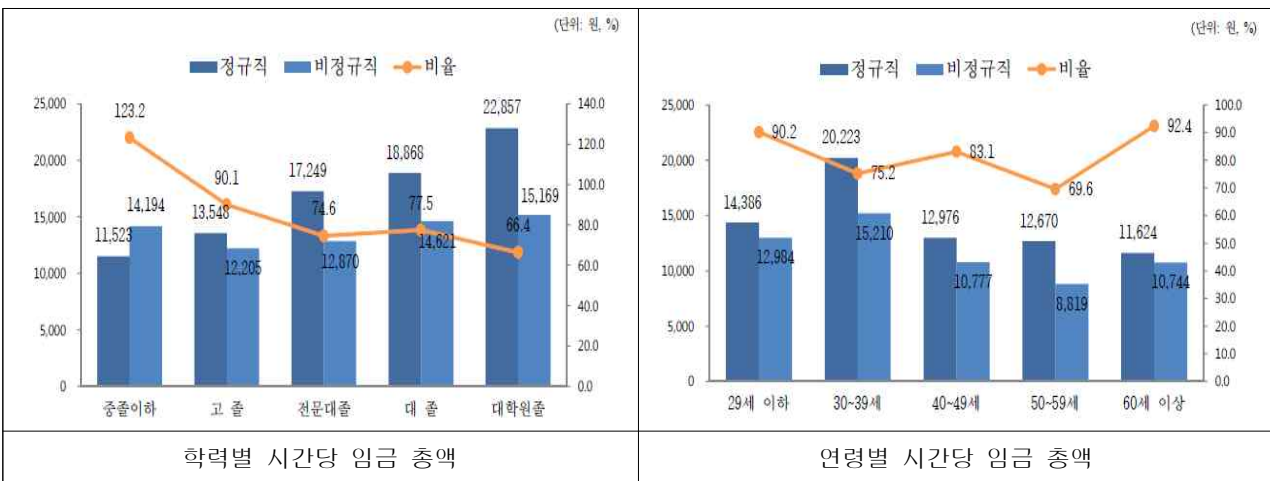
주4) []은 남성대비 여성의 시간당 임금 총액의 비율

자료: 한국여행업협회(2019), 최저임금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관광사업체 영향분석 보고서, 참조후 재작성

○ 학력 및 연령층별에 따른 임금현황

- 시간당 임금 총액을 학력별로 보면 모든 근로자(정규직, 비정규직)는 고학력일수록 많아지며, 비정규직 수준은 정규직 대비 학력이 높을수록 낮아져서 대학원 졸업의 경우 정규직 대비 66.4% 수준임

[그림 5] 학력별/연령별 시간당 임금 총액 차이(2018년 기준)



자료: 한국여행업협회(2019), 최저임금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관광사업체 영향분석 보고서, 참조후 재작성.

- 유원시설업의 연령별 시간당 임금총액은 모든 근로자(정규직, 비정규직)가 30대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낮은 연령층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50대 (8,819원)가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정규직의 경우 60세 이상(11,624원)이 가장 낮게 나타남

○ 사업체 규모별 임금현황

- 사업체 규모에 따른 시간당 임금총액의 경우 사업체 규모가 커질수록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총액 수준은 5~29인 사업체(85.5%)에서 가장 높고, 300인 이상 사업체(55.4%)에서 가장 낮게 나타남

<표 7> 사업체 규모별 시간당 임금 차이(2018년 기준)

(단위: 명, %)

고용형태	사업체 규모				
	전체	5인 미만	5~29인	30~299인	300인 이상
전체	16,900	12,956	14,620	16,399	21,628
정규직	17,775	13,211	15,010	17,019	24,250
비정규직	13,766(77.4)	10,521(79.6)	12,835(85.5)	14,496(85.2)	13,437(55.4)

주1) 특수형태 근로자 종사자는 제외

주2) ()는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근로자의 급여부분 비율

자료: 한국여행업협회(2019), 최저임금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관광사업체 영향분석 보고서, 참조후 재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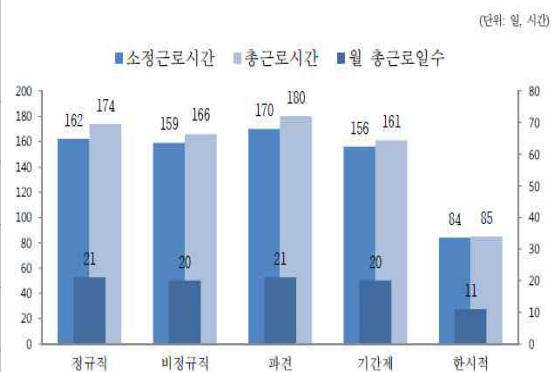
□ 근로시간 현황

- 전체 근로자의 총 근로시간은 173시간이며, 비정규직 근로자²²⁾는 166시간으로 정규직 근로자(174시간) 대비 95.3%로 나타남
- 소정 실근로시간은 전체근로자는 162시간이며, 비정규직 근로자는 159시간으로 정규직 근로자(162시간) 대비 98.0%로 나타남

<표 8> 고용형태별 총 근로시간(2018년 기준)

(단위: 일, 시간, %)

고용형태	근로일 수	총 근로 시간	소정 실 근로시간	초과 근로시간
전체	21	173	62	11
정규직	21	174	162	12
비정규직 (정규직 대비 비율)	20 (96.0)	166 (95.3)	159 (98.0)	7 (58.8)
파견 근로자	21	180	170	11
기간제 근로자	20	161	156	6
한시적 근로자	11	85	84	1



주1) 특수형태 근로자 종사자는 제외

주2) ()는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근로자의 수준(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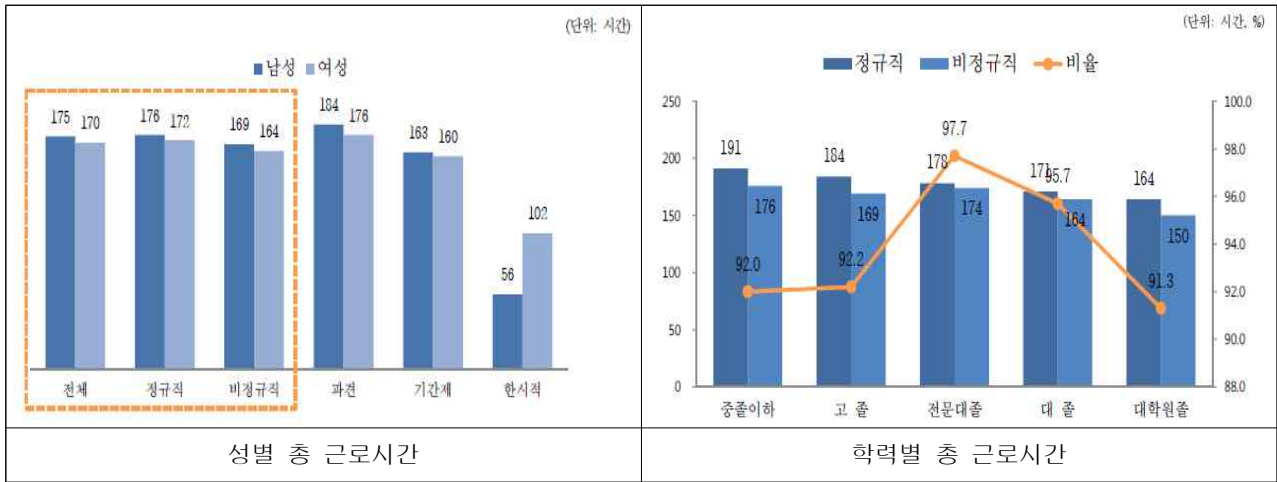
자료: 한국여행업협회(2019), 최저임금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관광사업체 영향분석 보고서, 참조후 재작성

22)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형태별로 살펴보면 파견근로자(180시간), 기간제근로자(161시간), 한시적근로자(85시간) 순으로 나타남

○ 성별 및 학력별 근로시간 현황

- 총 근로시간을 성별로 보면 남성 175시간, 여성170시간으로 나타났으며, 남성은 비정규직 근로자가 169시간으로 정규직 근로자(176시간)의 96.0%로 나타났고, 여성은 비정규직 근로자가 164시간으로 정규직 근로자(172시간)의 95.1%로 나타남²³⁾

[그림 6] 성별/학력별 총 근로시간(2018년 기준)



자료: 한국여행업협회(2019), 최저임금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관광사업체 영향분석 보고서, 참조후 재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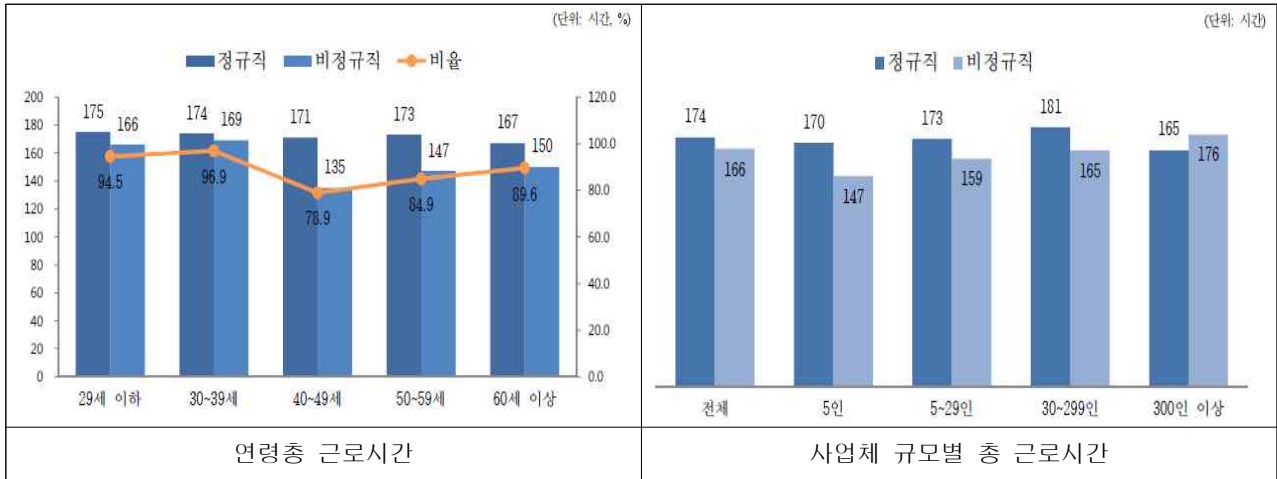
- 학력별 근로시간을 살펴보면 전체 근로자와 정규직 근로자에서 학력이 높아질수록 근로시간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으며, 정규직 근로자 대비 비정규직 근로자의 총 근로시간 수준은 대학원 졸업(91.3%)이 가장 낮게 나타났고, 전문대졸업(97.7%)에서 가장 높음

○ 연령층별/ 사업체 규모별 근로시간 현황

- 유원시설업의 전체 근로자 의 총 근로시간은 30대(173시간)가 가장 길게 나타났고, 60대 이상(165시간)이 가장 짧게 나타났으며, 비정규직 근로자의 총 근로시간은 정규직 근로자 대비 40대(78.9%) 비율이 가장 낮고, 30대(96.9%) 비율이 가장 높음
- 사업체 규모별 근로자의 총 근로시간은 30~299인 사업체(177시간), 5~29인 사업체(170시간), 5인 미만 사업체와 300인 이상 사업체(각각 168시간) 순으로 나타났으며,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시간 수준은 정규직 대비 300인 이상 사업체(106.8%)에서 비정규직의 근로시간이 긴 것으로 나타남

23) 고용형태별 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한시적근로자가 남성(56시간)과 여성(102시간)의 차이가 크게 나타남

[그림 7] 연령층별/사업체 규모별 총 근로시간(2018년 기준)



자료: 한국여행업협회(2019), 최저임금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관광사업체 영향분석 보고서, 참조후 재작성.

□ 사회보험, 상여금, 퇴직연금가입분석

○ 전체 근로자 사회보험²⁴⁾, 상여금, 퇴직연금 가입 현황

<표 9> 고용형태별 사회보험 가입률, 상여금 적용률, 퇴직연금 및 노조가입률(2018년 기준)

(단위: %)

고용형태	사회보험				상여금	퇴직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전체	98.0	98.7	98.7	98.9	56.6	61.2
정규직	97.9	98.7	98.7	98.8	65.9	64.6
비정규직	98.4	98.9	98.7	99.2	23.3	48.8
파견 근로자	99.4	100.0	99.4	100.0	20.6	59.2
기간제 근로자	98.5	99.0	99.0	98.8	24.1	45.0
한시적 근로자	25.0	25.0	25.0	100.0	75.0	25.0

주1) 고용보험은 65세 이상 및 60시간 미만 시간제 근로자 제외

주2) 건강보험은 60시간 미만 시간제 근로자 제외

주3) 국민연금은 18세 미만 60세 이상, 60시간 미만 시간제근로자 제외

주4) 상용근로자 1인 미만 제외

자료: 한국여행업협회(2019), 최저임금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관광사업체 영향분석 보고서, 참조후 재작성

- 유원시설업 전체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고용보험 98.0%(비정규직 98.4%), 건강보험 98.7%(비정규직 98.9%), 국민연금 98.7%(비정규직 98.7%), 산재보험 98.9%(비정규직 99.2%)로 나타남²⁵⁾

24) 사회보험의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보험을 의미함

25)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가입률 차이(정규직-비정규직)는 고용보험(-0.5%p)과 건강보험(-0.2%p), 산재보험(-0.4%p)의 비정

- 상여금 적용률은 전체 56.6%, 비정규직 23.3%로 나타났고, 퇴직연금 가입률은 전체 61.2%, 비정규직 48.8%로 나타남

○ 사업체 규모별 전체 근로자 사회보험, 상여금, 퇴직연금 가입 현황

- 사업체 규모별 고용보험 가입률은 비정규직의 경우 5인 미만 사업체(74.4%)가 가장 낮고, 300인 이상 사업체(100.0%)가 가장 높음²⁶⁾
- 사업체 규모별 건강보험 가입률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모두 규모가 커질수록 건강보험 가입률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²⁷⁾

○ 이러한 유원시설업의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임금수준은 정규직의 70%대 수준을 나타내고 있는 반면 근로일수 및 근로시간은 정규직의 90%의 비율을 나타남에 따라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무여건 개선이 요구됨

○ 또한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가입의 경우 파견 및 기간제 근로자는 90%이상 가입되어 있으나 한시적 근로자의 경우 산재보험 외 모두 25% 수준에 머물러 있어 근무경력 인정 등을 고려하여 사회보험 가입률 증대가 필요함

IV 시사점 및 ISC역할

□ 시사점²⁸⁾

- 최근 증가추세인 외국인 관광객을 비롯한 내국인의 국내여행 경험률이 높아짐에 따라 관광·레저산업은 지속적인 성장추세를 보이고 있음(사업체수: 19.5% ↑, 종사자 수 7.0% ↑)
 - 이 중 유원시설업의 경우 2017년 기준 전년대비 사업체 수가 43.0%가 증가하였고, 종사자수 역시 16.4%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연간이용객수 162,050,840명-전년대비 23.4% 증가)
- 이러한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추세에 따라 유원시설업의 경우 역시 양질의 고용창출 효과가 기대되고 있지만, 업종의 특성, 즉 계절적 영향(성/비수기)으로 인하여 비정규직 형태의 종사자 활용률이 높아지고 있음(방학시즌 아르바이트, 시기별 공연팀 등)

규직의 가입률이 정규직 가입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26)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가입률 차이는 규모가 커질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특히 300인 이상 사업체의 경우에는 비정규직의 가입률이 더 높음

27)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가입률 차이는 5인 미만 사업체(14.3%p)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음

28) 유원시설업 비정규직 실태조사에 대한 시사점은 현황 분석자료 및 현장/협회 담당자를 토대로 작성하였음

- 2017년 기준 유원시설업의 비정규직 종사자(임시 및 일용근로자, 기타근로자)는 업종 전체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어 타 업종에 비해 높게 나타났음(산업 평균 19.0%)
- 유원시설업은 국내 전역에 지속적인 시설투자(수도권 대형업체 지방 투자 등)로 사업체수가 늘어나고, 그에 따라 지속적인 인력수요가 요구되고 있지만 계절적 특성 및 인건비 인상(최저임금 인상 등) 등의 다양한 산업의 특성으로 인하여 비정규직 종사자의 활용은 더욱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최근 들어 젊은층 종사자들(정규직, 비정규직 등)은 직장에 대해 평생직장이라는 인식이 낮아짐에 따라 잦은 이직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아르바이트 형태의 파트 타임 선호도가 증가하고 있음(기업담당자 인터뷰)
- 따라서 유원시설업의 비정규직 형태 종사자 활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비정규직 종사자의 여건개선 및 서비스 질 향상과 기업의 효율적인 비정규직 종사자 활용방안 모색이 요구됨
 - 유원시설업의 비정규직 종사자들은 주로 고객접점 지점에 배치되어 있어 고객대상 서비스가 중요시됨에 따라 지속적인 서비스교육(대화기법, 고객응대 등)을 통한 고객만족도 제고시킴으로써 기업 이미지 향상이 필요함(기업 대상 교육수요조사 필요)²⁹⁾
 - 또한 기업의 경력 있는 비정규직 종사자를 선호함³⁰⁾에 따라 유원시설업 근무 경력자를 대상으로 인력POOL을 구축하여 시기별(성수기 등) 인력의 효율적인 공급이 가능한 플랫폼 역할이 가능한 기관의 참여가 요구됨

□ 유원시설업 비정규직 근로자 여건개선을 위한 ISC 역할

- 유원시설업 대상 지속적인 실태조사(근무여건, 교육 등)
 - ISC 참여기관(기업)인 (사)한국종합유원시설업협회 및 에버랜드 등과 협업하여 유원시설업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지속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함으로써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무여건 등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산업의 활성화 도모가 필요함
 - 또한 기업 및 비정규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필요교육 수요를 파악하여 현장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함으로써 서비스질 향상을 통한 기업 이미지 제고는 물론 ISC의 역할 확대를 통한 위상강화 도모
- 산업현장과 교육기관 연계를 통한 현장 맞춤형 교육 추진 및 인력양성
 - 현재 유원시설업에 필요한 다양한 직무에 대한 교육이 전문적으로 이뤄지는 교육기관

29) 이에 앞서 현재 비정규직 종사자의 임금수준은 물론 근로시간 등의 처우(사회보험료 가입 등) 개선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30) 신규 채용시 교육에 대한 시간적, 금전적 투자로 인하여 경력직 종사자(아르바이트 등)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 없는 상황으로 대규모 인력수급이 예측되는 유원시설업에 대한 대응방안 모색 필요 (전공이 상이하여 특정학과 개설어려움: 서비스, 안전분야 등)

- 또한 채용 후 근무시간 내 직무관련 교육진행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ISC의 역할이 요구됨(최근 근무시간 단축 등)
- 이에 학계(전문대, 전문학교 등)와 연계하여 유원시설업 종사자 양성과정(유원시설업 전문인력 양성 등)을 개설·운영함으로써 기업 수요에 적극적인 대응 필요하며, 연계사업 도출 필요(교육이수자 자격체계 구축 등)

○ 분야별 비정규직 근로자 인력POOL 구축을 통한 플랫폼 역할(기업 수요 대응)

- 최근 젊은 층 종사자들의 인식변화와 비정규직 종사자의 활용도가 높은 유원시설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분야별 유원시설업 근무 경력자들을 대상으로 인력Pool을 구축하여 시기별(성수기) 필요한 인력의 효율적인 공급시스템이 요구됨
- 이에 ISC는 유원시설업의 필요한 인력에 대한 수요조사 및 비정규직 근로자 대상 인력 확보를 통하여 근로자 및 기업의 요구에 대응함으로써 ISC 본연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대표성 강화 및 위상확보

참고문헌

- 고용노동통계 홈페이지(<http://laborstat.moel.go.kr>).
- 문화체육관광부, 「2015-2016-2017년 기준 관광사업체 기초통계조사」, 2016~2018.
- 문화체육관광부, 「2018 국민여행조사」, 2019.
- 문화체육관광부, 「2018년 기준 관광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2019.
- 법제처 홈페이지(<http://www.moleg.go.kr>)
- 한국노동연구원, 「2003~18 KLI 비정규직 노동통계」, 2018.
- 한국여행업협회(KATA), 「최저임금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관광사업체 영향분석」, 2019.
- Daum 백과(<http://100.daum.net/>)